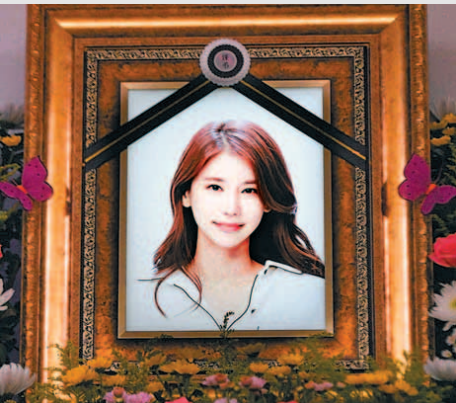


심정지로 병원 이송된 오인혜…결국 숨져

유튜브서 활동 의지 안타까움 커
사망 경위 불명…부검 의뢰 예정

“참 착하고 예쁜 사람이었는데…”
3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연기자 오인혜의 부음에 생긴 그와 영화 작업을 함께한 관계자는 15일 말을 잊지 못했다. 한 숨부터 내신 관계자는 “작품 활동이 원활치 못한 채 유튜브에서 기회를 모색하는 것 같았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오인혜는 14일 오전 5시쯤 인천 송도 자신의 아파트에서 심정지 상태로 지인

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호흡과 맥박을 되찾았지만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이날 오후 8시14분쯤 숨졌다. 고인의 빈소는 인천 인하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고, 발인은 16일이다.
고인은 동덕여대 방송연예과를 졸업하고 무명의 시간을 보낸 뒤 2009년 영화 ‘우리 이웃의 범죄’ 이후 본격적인 연기 활동을 펼쳤다. 2011년 박철수·김태식 감독이 공동 연출한 ‘붉은 바캉스 검은 웨딩’의 주연으로 나선 그는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레드카펫에서 파격적인 드레스로 세간의 시선을 끌었다. 이후 영



14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끝내 숨진 연기자 오인혜의 빈소가 인천 중구 인하대학교 부속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뉴스1

화 2013년 ‘생활할라’와 ‘소원택시’, 이듬해 ‘아누스:욕망의 두 얼굴’과 ‘설계’ 등에 출연했지만 한동안 스크린을 떠나야

했다.

성적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었다. 유튜브 채널 ‘근황올림픽’에서 “다른 이미지로 연기할 수 있는데 제의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신 유튜브 활동에 나섰다. 사망 이틀 전인 12일에는 올해 초 개설한 자신의 채널에서 활동 의지를 드러내 안타까움을 키우고 있다. 8월 가수 노틸러스와 협업한 노래 ‘차라리’를 내놓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오인혜의 가족과 지인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고인의 집에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등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빅히트, 10월 코스피 상장 앞두고 수요일 예측 시작

아미 주주도 총알 장전…‘BTS 주식’ 폭발력은?

올해 안 새 앨범…주가 상승 기대
매출 일등공신 ‘아미’도 청약 도전
BTS에만 의존·군입대는 리스크

‘다이너마이트’는 얼마만한 위력으로 폭발할까.

그들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10월 코스피 상장을 위해 5·6일 개인과 기관투자자 대상 청약 공모(713만주)에 나선다. 14일 해외 등 25일까지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 예측(공모가를 정하기 위해 희망가를 제시, 그에 대한 가격과 수량을 사전 파악하는 절차)이 시작됐다. 28일 최종 공모가에 따라 구체적인 시장 검증 효과가 뚜렷해질 전망이다.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인기와 미래가치에 힘입어 ‘기업 주식공개상장(IPO) 최대 대어’로 불릴 만큼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핵심은 방탄소년단이 지난 세 가지 잠재적 폭발력이다.

●다이너마이트 1…빌보드 3주 연속 최상 위권

방탄소년단은 신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로 15일 미 빌보드 싱글차트 ‘핫(HOT) 100’에서 2위를 차지했다. 2주 연속 1위에서 한 계단 내려앉았지만 여전히 최상위권이다.



그들 방탄소년단이 ‘신기록 굳히기’에 돌입했다. 이들은 신곡 ‘다이너마이트’의 발매 3주차인 15일 미국 빌보드 싱글차트 ‘핫 100’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사진제공 |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증권가는 ‘BTS 주식’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세계 최대 팝음악 시장인 미국에서도 최정상급 스타임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미국과 다른 지역에서 얻은 인기의 척도인 빌보드 ‘글로벌 200’ 등에서도 2위여서 더욱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또 올해 연말 새 앨범을 발표할 것을 예고했다. 빌보드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4연속 1위를 차지한 저력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다이너마이트 2…아미, 주주로 나서나

‘아미’로 불리는 방탄소년단의 팬들이

얼마나 ‘BTS의 주주’가 될지도 관심거리다. 하지만 공모 물량 가운데 개인 투자자의 일반 청약 규모는 제도상 20%(142만6000주)이고, 공모가도 비교적 부담스러운 수준이 될 수도 있어 실제 팬들이 주주가 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아미가 향후 주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팬들의 콘서트 티켓과 음반 구매 등이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5월 방탄소년단이 미국 LA 등 4개 도시 8회 공연으로 얻은 수익은 5166만 6038달러(약 600억원)였다. 빌보드가 지난해 발표한 월간 투어 수익 중 최고치

다. 또 빅히트는 팬 플랫폼인 위버스 등을 통해 “팬덤이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 창출에 기여한다”면서 올해 상반기 2940억원 가운데 1127억원의 규모(전체 38.3%)였다고 밝혔다. 그만큼 팬들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방증한다.

●다이너마이트 3…BTS, 핵심이자 최대 리스크

빅히트는 증권신고서에서 “방탄소년단의 매출액 비중이 올해 상반기 기준 87.7%(2578억6800만원), 지난해 5872억 2400만원의 97.4%(5718억4200만원)이다”면서 “특정 아티스트에 대한 높은 매출 의존도”를 투자위험요소(리스크)로 꼽았다. 당분간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인기로 기밀 수밖에 없는 셈이다. 성준원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특정 인기 아티스트에 의존하는 것은 엔터테인먼트 산업 특성상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멤버들의 군 입대도 변수다. 이에 군 입대에 앞서 다양한 활동을 꾀하는 연에게 흐름을 따를 전망이다. 빅히트는 “그들은 1992년~97년생 현역병 임명 대상 멤버로 구성됐다”면서 “MD 및 라이선싱·영상콘텐츠 등 간접참여형 매출 비중 확대, 앨범·영상 등 콘텐츠 사전 제작, 활동 가능 멤버 탄력적 운용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윤여수 기자

지만, 다운로드 13만6000회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 3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특히 라디오에서 더욱 선전했다. 지난 주(1600만명)보다 14% 늘어난 1830만 명의 청취자와 만나면서 ‘라디오 송’ 차트에 49위로 진입했다. 현지 가장 대중적인 매체인 라디오에서 많이 노출된 셈이다.

블랙핑크의 성과도 눈부시다.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 성적은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지난주 미국에서 모은 인기를 가리키는 ‘핫 100’에 13위로 진입해 케이팝 걸그룹 최고 성적을 썼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방탄 2위-블핑 6위…미국 팝시장 장악한 ‘쌍끌이 흥행’

(빌보드 글로벌 차트)

전세계 대상 신설 차트서 상위권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가 케이팝 ‘쌍끌이 흥행’을 이어가면서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단순히 젊은 마니아층이나 팬덤에 기댄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미국은 물론 전 세계 팝음악 시장을 장악하며 대중적 인기를 이어가고 있음을 입증했다.

15일(이하 한국시간) 방탄소년단은 미국 빌보드가 새로 신설한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서 신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로 각각 2위

에 올랐다. 블랙핑크도 미국 팝스타 셀레나 고메즈와 협업한 ‘아이스크림’(Ice Cream)으로 ‘글로벌 200’ 8위, ‘빌보드 글로벌’ 6위에 진입했다.

빌보드는 이날 전 세계 200여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미국을 제외한 ‘빌보드 글로벌’ 주간 차트를 신설해 발표했다.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수치를 기반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곡을 선정하는 차트”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다이너마이트’는 4일부터 10일까지 전 세계적으로 8340만회 스

트리밍되고, 3만6000건의 다운로드를 통한 음원 판매량을 기록했다. 1위에 오른 미국 래퍼 카디 비와 메건 더 스탈리언의 ‘WAP’ 다운로드 판매 횟수(2만3000건)보다 높은 수치다.

방탄소년단은 또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인 ‘핫 100’에서도 2위를 차지했다. 한국가수 최초로 2주 연속 1위에 오른 데 이어 3주차에도 최상위권을 지켰다. 특히 3주차에 한 계단 내려온 것은 순위 변동이 거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실제로 ‘다이너마이트’는 미국 스트리밍이 전 주보다 24%(1330만회) 줄어들었

연예뉴스 HOT 5

MBC ‘다큐플렉스’ 설리편 다시 보기 중단

고 설리(최진리)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인 MBC ‘다큐플렉스-설리가 왜 불편했나요?’가 15일 다시 보기 서비스를 모두 중단했다. MBC 관계자는 “제작진의 기획 의도와 다르게 고 설리의 주변 분들에게 악플이 달리는 등 제2의 피해가 우려돼 다시 보기 서비스를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10일 방송된 다큐멘터리는 고인의 어린 시절과 연습생 시절, 데뷔 이후의 모습을 차례로 담았다. 이 과정에서 생전 연인인 래퍼 최자가 언급되면서 2차 피해의 우려를 키웠다. 또한 방송 이후 설리의 오랜 지인과 친오빠가 설전을 벌이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었다.

세븐틴 ‘24H’ 日 오리콘차트 주간 앨범 1위



그들 세븐틴의 일본 두 번째 미니 앨범 ‘24H’가 일본 최대 음반 판매량 집계 사이트 오리콘 차트의 주간 앨범 랭킹 1위에 올랐다. 9일 공개된 앨범은 발매한 뒤 1주일 만에 24만 장을 팔아치워 자체 최고 기록을 세웠다. 앨범에는 동명의 타이틀곡과 유닛곡 ‘바람개비’, ‘247’, ‘칠리’ 등을 비롯한 5곡이 일본어로 번안돼 수록됐다. 그룹은 해외 활동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는 15일 “멤버 조슈아와 도겸이 미국 유명 싱어송라이터 핑크 스웨츠(Pink Sweat\$)의 노래 ‘17’ 리믹스 버전에 피쳐링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노래는 17일 오후 5시(한국시간) 전 세계 동시 공개된다.

‘동백꽃 필 무렵’ 서울드라마어워즈 5관왕

작년 9월 방영한 KBS 2TV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이 제 15회 ‘서울드라마어워즈’ 5관왕에 오르면서 식지 않은 인기를 과시했다. 15일 MBC에서 녹화 중계된 시상식에서 드라마는 작가상, 작품상 최우수상, 여자연기자상(공효진), OST상, 한류 드라마 남자연기자상(강하늘) 등 5개 부문을 석권했다. ‘동백꽃 필 무렵’은 방영 당시 23.8%(닐슨코리아) 시청률을 돌파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극본을 쓴 임상춘 작가는 “묵묵한 글쓰기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상은 시리아 난민 문제를 다룬 브라질 드라마 ‘오픈스 오브 어 네이션’이 선정됐다.

장민호 팬클럽, 태풍 피해 돕기 6000만원

트로트가수 장민호의 팬클럽이 태풍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보냈다.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는 15일 “장민호의 팬클럽 ‘민호특공대’가 태풍 피해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시민들을 위해 써 달라며 60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팬클럽은 장민호의 생일을 맞아 그의 고향인 인천의 태풍 피해 주민들을 돕고자 9일부터 릴레이 기부 행사를 벌였다. ‘민호특공대’의 해외 거주 회원들도 같은 날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122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기부금은 국내문화예술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tvN ‘신서유기 시즌8’ 내달 9일 첫 방송

나영석 tvN PD가 이끄는 예능프로그램 ‘신서유기’ 시즌8이 10월9일 밤 9시10분 첫 방송 한다. 제작진은 15일 “지리산 근처에서 촬영 중”이라며 “출연진과 제작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현재 전담 방역팀과 함께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촬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방송인 강호동, 이수근, 가수 은지원, 규현, 민호, 피오가 전래동화 콘셉트로 분장쇼를 펼치는 과정을 담는다. 제작진은 14일 유튜브 계정인 채널 심오야를 통해 촬영 현장을 생중계해 시청자의 관심을 모았다.

‘초신성’ 윤학·성제, 해외 불법도박 혐의 입건

필리핀서 판돈 5000만원 가량 도박
개그맨 2명도 불법도박장 운영 기소

5인조 그룹 초신성의 멤버 윤학(정윤학·36)과 성제(김성제·36)가 해외 불법도박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들은 “필리핀 여행에서 우연히 도박을 했다”며 “안일한 생각으로 부주의하게 행동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경찰은 다른 연예인 및 조직폭력배 연루 여부 등

을 들여다보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5일 인천지방경찰청 공역수사대에 따르면 윤학과 성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필리핀에서 700~5000만원의 판돈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두 차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도박 자금을 현지 관전자에게 입금하는 과정에서 범죄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다른 연예인들도 도박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다만 윤학과 성제 외에 초신성 멤

버들의 혐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직폭력배들이 사건에 개입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 범위를 확대할 전망이다. 경찰은 조만간 도박장 운영자 등 관련자들의 신병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개요를 파악할 방침이다.

이에 초신성의 소속사 SV엔터테인먼트는 15일 “윤학과 성제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 죄송하다”며 사실상 불법도박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윤학과 성제는 여행 중 안일한 생각에 부주의한 행동을 하게 된 점을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신성은 2007년

6인조로 데뷔한 뒤 2018년 5인조로 개편해 슈퍼노바로 그룹명을 바꿨다. 2009년 일본에 진출해 오리콘 차트에도 이름을 올리는 등 인기를 얻어왔다.

한편, SBS 공채 출신 개그맨들이 서울 시내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MBC ‘뉴스데스크’는 이날 “개그맨 김모 씨와 최모 씨가 2018년 1월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1일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10월21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